

도시 전체를 '대형정원'으로

집집마다 작은 정원... 도심 한평 정원... 시민 정원사 육성

순천시, 정원문화 확산 총력

이웃 소통 오픈가든 투어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도시인 순천시가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주택마다 작은 정원을 만들고, 도심 한평정원 조성, 오픈가든 투어, 시민 정원사 육성 등 다양한 정원사업을 적극 지원·육성에 도시 전체를 '대형 정원화'하는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집·동네 곳곳에 정원이 들어선다=순천시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집 작은정원 만들기' 실습 특강에 나서고 있다. 최근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 작가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진홍 가든디자이너의 이론 및 시연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우리집 작은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은 오는 7월 정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강연이 예정돼 있으며, 9월에는 작은정원 만들기 사진과 수기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교육은 도시동, 장천동, 매곡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모든 시민을 정원사로 양성한다=시는 정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원 관리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6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김진홍 (뒷줄 왼쪽 네번째) 가든디자이너가 최근 우리집 작은 정원 만들기 특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 정원사 양성교육은 '누구나 정원사 교양반'과 '시민정원사 심화반' 등 2개 과정 각 30명씩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누구나 정원사'는 정원 관련 기초 교양강좌로 개인정원 만들기 실습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교양반 과정이다. '시민 정원사'는 지난해 실시한 정원 관련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

◇정원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한다=순천시는 정원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오픈가든 투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오픈가든 투어는 올해로 3회째다.

올해는 '봄'이라는 계절 테마로 임정대, 옥천서원 등 원도심 문화재와 도보

투어 코스 운영, 스토리가 있는 개인정원, 가든파티 및 음악회 개최 등을 연계해 투어 참여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하반기 오픈가든 투어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오픈가든 페스티벌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투리 땅도 정원으로 만든다=자투리 땅도 정원으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한평 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정원을 감각하게 하라'는 주제로 정원이 가진 다양한 감각에 초점을 두고 작가부·학생부·일반부 등에서 총 60개 작품을 전시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 '원도심 랜드마크' 국제 공모전 1등 인도팀 '숨겨진 화랑'

반지하에 전시·공연장·광장 지하상가와 옥천 연결 호평

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순천부흥성 관광자원화'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 원도심 랜드마크 국제아이디어 설계 심사에서 인도 스튜디오 MADE팀의 '숨겨진 화랑'(사진)이 1등에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에는 해외 185팀과 국내 118팀 등 총 42개국 303개팀이 참여하는 등 외국팀 참가율이 61%를 넘어서는 등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작품심사는 프란시스코 사닌과 민현준, 키스반더시, 김준성, 유엘브라인 등 UIA에서 추천한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들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진행했으며, 1등 1팀과 2등 1팀, 3등 3팀 등 5개의 당선작과 가작 8팀을 선정했다.

1등에는 인도 studio MADE의 'The



Hidden Cloister(숨겨진 화랑)'가, 2등에는 프랑스 reset-studio의 'Between the Yeonja-ru Roofs'가 선정됐다.

1등에 당선된 인도 MADE팀에게는 6만달러의 상금과 실시설계 우선권이 주어진다.

사민 심사위원장은 "1등 당선작은 순천 원도심재생의 촉매제와 랜드마크 역할을 위한 역사 및 도시 맥락을 수용한 독

창적 재해석으로 반지하의 화랑에 다양한 전시, 공연장과 광장을 중심으로 지하상가와 옥천을 연결했다"면서 "특히 지상에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정원의 도시에 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독거노인 보금자리 생겼어요... '제1호 무지개 희망하우스' 준공

주암면 가음마을에

순천시 주암면 가음마을에 독거노인의 편안한 보금자리 '제1호 무지개 희망하우스'가 탄생했다.

무지개 희망하우스는 자립능력이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역봉사단체들이 지역자원을 연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무지개 희망하우스는 무지개 봉사단과 코레일전남본부봉사단, 대한적십자광주전남지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순천지역자활센터, 주암면마을보장협의체, 복지이장, 팔들동 등 10개의 지역자원봉사단체들이 후원금 5200만원을 마련하고, 재능기부를 보태 지상 1층 46㎡(15평) 규모로 신축됐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무지개 희망하우스 준공식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



조충훈 순천시장이 최근 순천시 주암면 가음마을에서 열린 '제1호 무지개 희망하우스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려운 시기임에도 이웃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

를 통한 '행복지수 1위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자연휴양림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

25일~9월24일까지 5차례

순천시는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천자연휴양림에서 숲속의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휴양객에게 활력충전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3월

개관예정인 '숲속 치유의 집' 홍보를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

음악회는 '순천이 좋다, 아름다운 동행'을 부제로 순천지역 대표 클래식합주단 남녀 5인조 '조이플앙상블'의 공연을 시작으로, 순천에서 활동하는 대표 음악인이 총출동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자연휴양림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휴양림 및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자연속에서 즐기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과 휴양객 모두 힐링의 기회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개관예정인 '숲속 치유의 집'은 숲속의 집 2실, 아토피체험관 1실, 안내 진단실 1실, 치유원두막 1동, 데크야영장 2면 등을 갖춘 치유시설로 치유와 관광을 연계한 휴양 거점 시설로 활용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큰 소나무가 있는 집'을 테마로 한 순천시 저전동 소재 성정자씨의 집 '오픈가든'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